

# 혁신형 중소기업의 조직혁신역량이 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재훈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무역학과 박사과정

오가영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경제통상학과 부교수

##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 Innovation Capabilities and Export Performan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ype SMEs

Jae Hoon Jung<sup>a</sup>, Ka Young Oh<sup>b</sup>

<sup>a</sup> Doctoral Student, Dept. of Internatioinal Trade, Konkuk University, Glocal Campus, South Korea

<sup>b</sup> Department of Economic and Trade, Associate Professor, Konkuk University, Glocal Campus, South Korea

*Received 31 August 2022, Revised 26 September 2022, Accepted 28 September 2022*

###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 the effect of innovative capacity on corporate export performance and moderating flexibility.

**Design/methodology/approach** - For this, hypotheses were established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and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for testing.

Using SPSS 22.0, a frequency analysis of related variables was conducted. Through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s of measuring tools were conducted and a descriptive statistics was analyzed for collected data result and hypotheses testing.

**Findings** - Finally, with a verified model, the hypotheses and the moderating effects were tes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innovatona capacities have a positive effect on export performance and flexibility However, the flexibilitiy was not moder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ve capacity and export performance.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According to the results above, this study presents directions to improve export performance of technological innovative type SMEs. The innovative capabilities, marketing capacity, organization innovative capacity and process innovative capacity, has an positive effect on

**Keywords:** Innovative Capacity, Export Performance, Flexibility

**JEL Classifications:** C12, C83, D40, L15

<sup>a</sup> First Author, E-mail: hwangso92@kku.ac.kr

<sup>b</sup> Corresponding Author, E-mail: ohkayoung@kku.ac.kr

© 2022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 I. 서론

혁신형 중소기업이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통칭하는 말로, 현행 제도에서는 벤처기업과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였으며 혁신형 중소기업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추세이다(Fig. 1 참조). 역사적으로도 혁신은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OECD를 따른 20년가 주요 기술혁신의 50%는 중소기업에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미국의 경우 철강, 석유 정제산업 기술혁신의 100%, 알루미늄산업 기술혁신의 80%를 혁신형 중소기업이 이루고 있으며, OECD,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최근 GDP 성장 및 고용창출을 혁신형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 실리콘 벨리의 성장은 혁신형 중소기업이 지역기술에 특화된 성과를 실현한 것을 볼 수 있다. EU의 첨단분야 특히 중 혁신형 중소기업 보유 비중이 99%에 달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2차대전 후 경제제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고, 현재에도 선진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일찍이 인지하여 95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해 왔다(중소벤처 24).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지원은 필요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법령정보센터(2022)을 보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중 특히 특허나 기술력을 토대로 시장에 진입한 중소기업 즉, 혁신형 중소기업은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 경제 발전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본인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성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이 처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공정을 받아들여야 된다. 또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변화에 더욱 빠르게 반응하며 탄력적으로 조직의 공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박경수·신진교(2017)에 따르면 혁신형 중소기업은 협소한 국내 시장에서 수익을 달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한국과 같이 외부 경제에 기대어 발전하는 경제 구조를 가진 환경에서는 기술이나 공정과 같은 부분에서 외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속하게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viello & Cox(2006)은 국내시장과 달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나 고객의 요구를 파악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특히 블랙스완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불확실한 시장의 대응 능력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또 다른 경쟁우위 원천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과의 사이에서 조직의 해외시장에 대응하는 유연성의 정도가 조절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Kim(2005)에 따르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유연성은 기업의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경쟁력을 갖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의 혁신성을 올슨(OLSON)의 혁신유형에 기반을 두고 조직의 혁신역량이 조직의 해외시장 적응 유연성과 수출성과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 나아가 유연성이 조직의 혁신역량과 수출성과 사이에서 조절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혁신형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출성과에 영향을 주는 혁신역량 요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부분에서 혁신형 중소기업만을 위한 혁신역량 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며, 향후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하고자 할 때 육성하여야 할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는데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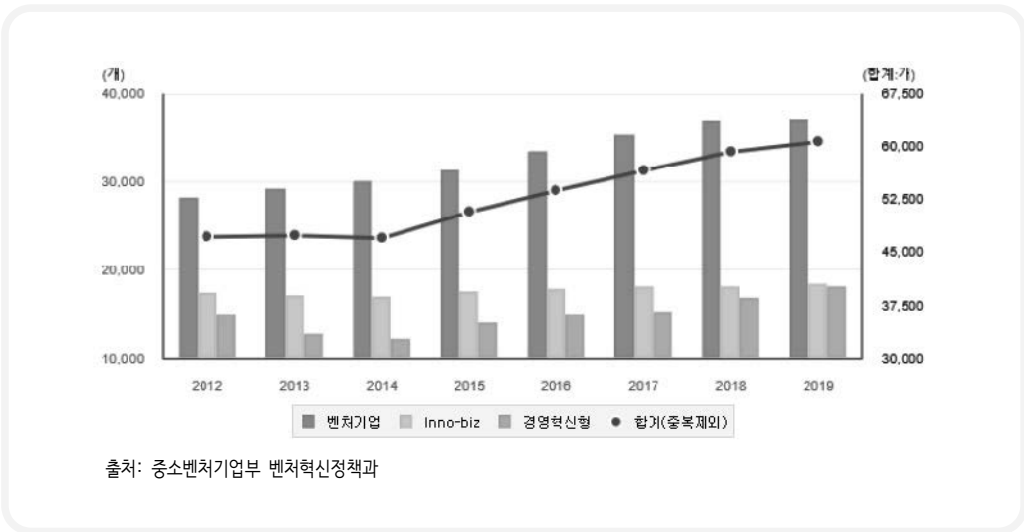
## II. 이론적 배경

### 1. 혁신형 중소기업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99.9%는 중소기업이다(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은 외부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여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한다. 즉,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기술의 보유는 곧 생존을 의미하고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KDI)<sup>1)</sup>

혁신형 중소기업이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통칭하는 말로, 현행 제도에서는 벤처기업과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였으며 <Fig. 1>을 보면 혁신형중소기업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혁신형 중소기업은 제품개발이나 특허 성과와 관련된 혁신성과, R&D 인력이나 R&D에 기반을 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신생 기술기반 중소기업, 성숙기술 기반 중소기업, 하이테크 중소기업 등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의 공통점은 혁신을 생산했거나 혁신체를 공급망안에서 공급하고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오슬로 매뉴얼(Oslo Manual)의 혁신유형에 따르면, 제품혁신, 공정혁신, 마케팅 혁신, 조직혁신 4가지로 나뉠 수 있다. 이러한 4개 유형의 공통점은 기존의 제품이나 사용처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였거나 혹은 사회에 변화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의미있게 개선 된 정도를 의미한다.

### 2. 해외시장 적응력과 기업의 성과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의 기업에 비해 해외경험이 적으며 불확실한 외부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다. 이에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 제품군에 속한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시장에 대한 적응력은 기업의

1)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5170>

성공을 위하여 더욱 중요한 요소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환경의 변화에 민첩하게 움직이며 조직의 운영에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도 하다. 이에 Denslow et al.(2005)는 조직이 환경변화에 적응을 위하여 민첩하고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능력 정도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해외시장적응력은 일반적으로 불확실한 외부 환경에 얼마나 유연하게 적응하는 정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연구에서 조직의 민첩성과 유연성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유연성은 동적역량과 잠재적 역량으로 나뉘어 분석되고 있다. 동적역량이란 외부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조직의 능력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잠재적 역량은 GSCM과 같은 기업의 공급망 안에서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역량(Kim, 2005)으로 정의된다.

Tsourveloudis and Valavanis(2002)는 변화가 심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며 그 중 시스템의 신속과 정확성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Eshima and Anderson(2017)조직의 민첩성과 유연성은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환경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김종영 박종우 조동혁(2015)은 잠재적 역량 관점에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공급사슬의 지향성 및 민첩성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관계를 검증한 연구에서 공급사슬 민첩성과 성과 간의 관계에서 신속성과 반응성은 기업의 운영과 재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유연성은 운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철(2020)은 조직이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맞춰 내부 역량을 민첩하게 바꾸고 외부 환경에 맞춰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눈 연구에서 이러한 역량들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윤승환 · 안세화(2022)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성과사이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연구에서 민첩성과 유연성을 “소비자의 요구나 취향에 맞춰 신속하게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사양 또는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 연구에서 유연성은 기업의 혁신역량과 성과사이에서 조절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민첩한 기업의 대응은 불확실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구조나 조직의 변화를 촉구하여 새로운 기회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과와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은 이와 같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탄력적으로 기민하게 움직이며 유연하게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환경 변화에 적응이 빠르며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른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조직의 민첩성과 유연성은 기업의 성과 뿐만 아니라 조직의 존재 유무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 3. 조직혁신역량과 기업의 성과

일반적으로 조직역량은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시키기위한 조직 구성원들이 구사하는 전략과 추진 능력, 성과 관리등의 업무 수행 능력 등으로 정의된다. 다양한 연구에서 조직역량은 정의되는 바, 이택원(2011)은 조직역량을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 역량으로서 경쟁기업과 차별될 뿐만 아니라 사업성공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서관중 · 김동희 · 문태수(2022)는 “대표 및 경영진 등 구성원 역량과 조직의 비전과 목표에 의한 사업 전략과 추진 능력,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등의 업무 수행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조직역량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인적자원 관리를 통한 조직성과 개선(Delery and Doty 1996)과 둘째, 제품의 혁신이나 품질관련능력으로 나뉜다. 두 번째 차원인 조직내에 제품의 혁신 능력, 다른 차원의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마케팅 능력은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조직의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으 조직역량을 두 번째 차원에 집중해서 분석한다. Cohen and Levinthal(1990)은 조직역량의 하나로서 흡수능력을 학습과 혁신의 관점에서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새로운 외부정보를 동화시켜서 상업적 목표에 응용하는 가치를 인식하는 기업 능력으로 지정하고 있다. Zahra and George(2002)는 조직의 성과개선을 위한 조직역량 중 흡수능력을 잠재적 흡수능력과 실질 흡수능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잠재적 흡수능력은 지식획득과 동화를

말하며, 기업으로 하여금 전략적 유연성과 적응 잠재력을 갖게 한다. 실질 흡수능력은 지식변환과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Lee et al.(2011)은 흡수역량이 높은 중소기업은 외부에서 획득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업은 성과를 향상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흡수역량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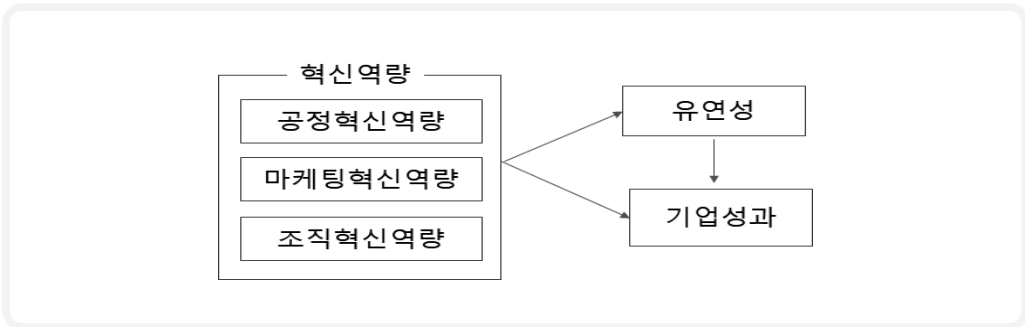
Burgelman et al.(2009)은 혁신역량을 기업이 혁신전략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일련의 기업특성으로서 지속가능한 성공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며 혁신활동의 중요한 결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Cohen and Levinthal(1990)은 조직역량의 하나로서 흡수능력을 학습과 혁신의 관점에서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새로운 외부정보를 동화시켜서 상업적 목표에 응용하는 가치를 인식하는 기업 능력으로 지정하고 있다.

### III. 연구모델 및 조작적 정의

#### 1. 연구모델

Fig. 2. 연구모델



본 연구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조직혁신역량과 시장적응역량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나아가 조직혁신역량이 시장적응역량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조직혁신역량은 오슬로 혁신 유형에 기반을 두고 공정혁신, 마케팅 혁신, 조직혁신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적응역량은 유연성과 민첩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아가 조직혁신역량이 시장적응역량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여 기업의 혁신정도가 해외시장 적응에 미치는 관계까지 파악하고자 한다.

#### 2. 조작적 정의 및 연구가설

##### 1) 유연성

시장적응역량 중 유연성이란 변화하는 경영 및 시장환경에서 재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기술 및 자원, 조직 구조 인력 등이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조직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경쟁자들보다 시장에서 빠르게 적응하며 경쟁우위 확보를 통해 고객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김성수 외(2014)와 지성구·편해수(2009)는 민첩성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기업들이 조직을 능동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장과 환경의 변화를 이용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기업의 능력이라고 하였다. Shefer and Frenkel(2005)는 조직역량은 창업기회 향상,

성장가능성 제고, 그리고 시장점유율과 생산효율성 증대를 통해 재무성과 향상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또한 조직역량은 국내의 시장경쟁력 강화, 신사업기회 획득 및 선점우위의 획득을 통하여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Kanter, 1999), 경쟁우위의 획득과 국제 시장 진출 및 기업의 생존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준다(Mone et al., 1998).

## 2) 조직역량

Cohen & Levinthal(1990)은 흡수역량을 “기업 외부의 지식을 탐색하여 인식하고 이를 내부 지식으로 체화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윤상만(2018)은 새로운 정보의 가치를 인식하고 체득하여 이를 상업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Park(2022)는 기업이 성공을 위해서는 내부역량 이외에 외부 정보, 지식 및 역량을 흡수하여 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외부 지식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Yang(2018)은 흡수역량은 직원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지식개발과 지식공유는 회사의 발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Lee et al.(2011) 역시 흡수역량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 3) 마케팅혁신역량

윤승환·안세화(2022)는 기업의 마케팅혁신역량을 “기업이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요소들을 이해함으로써 마케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여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능력”(P. 84)으로 설명하고 있다. Morgan et al., (2009)은 기업의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최소한 마케팅역량을 가지고 있을 때 기업의 성과는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이는 기업의 경쟁우위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케팅 역량을 측정과는 관련하여 역사가 깊은 않지만 Weerawardena et al., (2007)은 마케팅역량을 마케팅믹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해외시장에 용이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역량으로 측정하고 있다.

정병철,최순권(2020)의 연구에서 마케팅혁신분야에서 가격책정방식의 개선이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Vorhies and Morgan, 2005; Weerawardena, 2003; White et al.,(2010)는 기업의 마케팅역량은 기업의 성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역량은 기업이 지속적 경쟁우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량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정도, 고객의 욕구를 관찰하고 반영하는 정도,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제품을 검토 및 새로운 제품의 개발 등을 측정항목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 4) 공정혁신역량

혁신역량에 대한 정의는 여러 연구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확립된 정의는 없다(문혜선, 2013). Metcalfe(1995)는 혁신역량을 혁신을 이루기 위해 투입된 노력과 산출물간의 관계로 정의하고 있으며, Lall(1992)은 혁신역량은 기존의 기술의 흡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데 필요한 기능 및 지식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혁신역량은 다양한 연구에서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대희·진창현(2016)의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혁신역량과 기업의 성과 사이에서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배창봉·김정희(2019)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역량과 경영성과사이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서 둘 사이에 정(+)의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상기 연구를 토대로 기업의 혁신역량은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우위를 창출 혹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재조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은 기업이 급변하는 환경과 새로운 환경에서도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이는 기업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 혁신형 중소기업의 공정혁신역량은 유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혁신형 중소기업의 마케팅혁신 역량은 유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3: 혁신형 중소기업의 조직혁신역량은 유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혁신형 중소기업의 공정혁신역량은 기업의 수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5: 혁신형 중소기업의 마케팅혁신 역량은 기업의 수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6: 혁신형 중소기업의 조직혁신역량은 기업의 수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유연성은 공정혁신역량과 수출성과 사이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8: 유연성은 마케팅혁신역량과 수출성과 사이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9: 유연성은 조직혁신역량과 수출성과 사이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 IV. 실증분석

### 1. 자료수집

울슨의 혁신역량 구분에 기초를 두고 본 연구는 기업의 혁신역량을 공정혁신역량, 마케팅 혁신역량, 조직혁신역량을 보았고, 이러한 역량들이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시 조직의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022년 2월 한 달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서울, 경기, 부산권 기업을 대상으로 설정 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 문항에 응답 하지 않은 경우 다음 설문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여 총 250개의 설문이 회수 되었다. 본 설문 자료는 기초통계분석 및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 다중회귀 분석 등을 SPSS 22.0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 2. 요인 분석 및 신뢰성 분석

#### 1) 요인분석

기업의 혁신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마케팅혁신역량, 조직혁신역량, 공정혁신 역량과 관련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케팅혁신역량은 새로운 고객과의 관계 구축, 고객의 욕구를 관찰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의 검토 등으로 측정되었다. 조직혁신역량은 새로운 지식에 대한 탐구와 혁신자원의 보유 여부 및 내부화 등으로 측정하였다. 나아가 공정혁신역량은 현재 사업프로세스의 과정을 재조정하며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한지로 평가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마케팅혁신역량의 요인적재값은 0.759~0.811로 나타났으며 Cronbach's  $\alpha$  값은 0.801로 나타났다. 조직혁신역량의 요인적재값은 각각 0.855, 0.801, 0.785, 0.711로 나타났으며 Cronbach's  $\alpha$  값은 0.808로 나타났다. 공정혁신역량의 요인 적재값은 0.804, 0.759, 0.725, 0.609로 나타났으며, Cronbach's  $\alpha$  값은 0.825로 나타내서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업의 유연성은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정도, 조직의 탄력적 변화 가능성, 거래상대국의 변화에 반응하는 정도와 거래파트너에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정도로 평가하였으며 각각의 요인적재값은 0.932, 0.651, 0.698, 0.621이며 Cronbach's  $\alpha$  값은 0.817로 나타났다. 기업의 수출성과 항목은 타기업과 비교하여 수출계약건수와 수출증가율로 평가하였으며 요인적재값은 0.885, 0.860 Cronbach's  $\alpha$  값은 0.754로 이 역시 신뢰도는 확보되었다.

**Table 1.** 기업의 혁신역량의 타당성과 신뢰성

항목	요인적재값	Cronbach's Alpha
마케팅혁신역량_1	.811	.801
마케팅혁신역량_2	.798	
마케팅혁신역량_3	.759	
조직혁신역량_1	.855	.808
조직혁신역량_2	.801	
조직혁신역량_3	.785	
조직혁신역량_4	.711	
공정혁신역량_1	.804	.825
공정혁신역량_2	.756	
공정혁신역량_3	.725	
공정혁신역량_4	.699	
유연성_1	.932	.817
유연성_2	.651	
유연성_3	.698	
유연성_4	.621	
수출성과_1	.885	.754
수출성과_2	.860	

Kaiser-Meyer-Olkin(KMO) = .899

\*p<0.05, \*\*p<0.01,

2) 상관관계

상관관계분석은 <Table 2 >와 같다.

**Table 2.** 상관관계분석

	공정혁신역량	마케팅혁신역량	조직혁신역량	수출성과	유연성
공정혁신역량	1				
마케팅혁신역량	.628**	1			
조직혁신역량	.585**	.561**	1		
수출성과	.358**	.662**	.564**	1	
유연성	.481**	.670**	.501**	.425**	1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3) 가설검증

먼저 가설 1 공정혁신역량은 유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t-value 4.328로 유의수준 .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결과를 얻었다. 즉 조직이 새로운 과정이나 제품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기업은 해외시장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케팅 혁신역량과 유연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설 2는 t-value 3.078로 유의수준 .000으로 가설 2 역시 채택되었다. 마케팅 역량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기업이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역량이며 소비자의 변화와 시장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역량으로 마케팅 역량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해외시장에 적응하는 유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 3 조직 혁신역량이 유연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조직혁신역량 즉 조직이 외부의 새로운 혁신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고 서로 상화 신뢰가 높을수록 해외시장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조직의 혁신역량과 유연성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수준	채택여부
	B	표준 오차	베타			
1 (상수)	.181	.137		1.321	.188	-
가설 1 공정혁신역량	.298	.069	.285	4.328	.000	채택
가설 2 마케팅혁신역량	.222	.072	.205	3.078	.002	채택
가설 3 조직혁신역량	.422	.061	.416	6.892	.000	채택

조정된 R<sup>2</sup>= .550 종속변수 : 유연성

가설 4 혁신형 중소기업의 공정혁신역량은 기업의 수출성과 및 가설 5 마케팅혁신역량과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와 5를 검증한 결과 t-value 1.267로 유의수준 .206 t-value 1.236 유의수준 .218로 기각되었다. 조직혁신역량과 수출성과사이의 관계를 설정한 가설 6은 t-value 8.505로 유의수준 .000에서 채택되었다.

**Table 4.** 조직의 혁신역량과 수출성과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수준	채택여부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037	.195		.188	.851	-
가설 4 공정혁신역량	.124	.098	.099	1.267	.206	기각
가설 5 마케팅혁신역량	.126	.102	.098	1.236	.218	기각
가설 6 조직혁신역량	.740	.087	.609	8.505	.000	채택

조정된 R<sup>2</sup>= .591 종속 변수: 수출성과

**Table 5.** 조직혁신역량과 수출성과사이에서 유연성의 조절효과

	분석 단계	회귀모형적합도			회귀계수(종속변수 만족도)	
		R	R <sup>2</sup>	조정된 R <sup>2</sup>	독립변수	t값 (유의도)
가설 7	1단계	.764	.584	.583	조직혁신역량	18.669
					조직혁신역량*유연성	.000
	2단계	.834	.695	.693	유연성	.000
					조직혁신역량	.017
	3단계	.834	.696	.692	유연성	.000
					조직혁신역량*유연성	.848

나아가 조직혁신역량과 수출성과 사이에서 유연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가설 7은 R<sup>2</sup> 은 .584 .695 .696으로 모델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나아가 조직혁신역량\*유연성 요인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유연성은 조직혁신역량과 수출성과사이에서 부분적으로 조절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설 8은 마케팅역량과 수출성과 사이에서 유연성의 조절역할을 알아본 결과 R<sup>2</sup> 의 설명력은 .438 .663 .664로 증가하였으나 3단계에서 각각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임으로써 유연성은 마케팅역량과 수출성과 사이에서 조절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6.** 마케팅역량과 수출성과사이에서 유연성의 조절효과

	분석 단계	회귀모형적합도			회귀계수(종속변수 만족도)	
		R	R <sup>2</sup>	조정된 R <sup>2</sup>	독립변수	t값 (유의도)
가설 8	1단계	.662	.438	.436	마케팅역량	13.899 (.000)
					마케팅역량	1.554 (.121)
	2단계	.814	.663	.660	유연성	12.835 (.000)
					마케팅역량	4.283 (.000)
	3단계	.815	.664	.660	유연성	4.297 (.000)
					마케팅역량*유연성	2.102 (.012)

**Table 7.** 공정혁신역량과 수출성과사이에서 유연성의 조절효과

	분석 단계	회귀모형적합도			회귀계수(종속변수 만족도)	
		R	R <sup>2</sup>	조정된 R <sup>2</sup>	독립변수	t값 (유의도)
가설 9	1단계	.658	.434	.431	공정혁신역량	13.779 (.000)
					공정혁신역량	1.046 (.297)
	2단계	.813	.661	.658	유연성	12.870 (.000)
					공정혁신역량	-4.02 (.668)
	3단계	.814	.662	.658	유연성	4.336 (.000)
					공정혁신역량*유연성	1.038 (.300)

공정혁신역량과 수출성과 사이에서 유연성의 조절역할을 알아본 가설 9의 경우 R2의 값은 .658, .813, .814로 증가하였으나 각각의 단계에서 변수들이 유의미한 값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유연성은 조절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V. 결론

본 연구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영향을 주는 조직의 혁신역량을 알아보고 수출성과와 혁신역량 사이에서 유연성의 조절역할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 및 조절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혁신역량은 공정혁신역량, 마케팅혁신역량, 조직혁신역량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가설 1~3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공정혁신역량, 마케팅혁신역량, 조직혁신역량이 기업의 유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의 t-value는 각각 4.328, 3.078, 6.89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채택되었다. 다음 가설 4~6 공정혁신역량, 마케팅혁신역량, 조직혁신역량이 기업의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설의 t-value는 각각 1.267, 1.236, 8.505로 조직혁신역량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줬다.

셋째, 가설 7~9를 살펴보면, 조직의 혁신역량과 기업의 수출성과 사이에서 유연성의 조절역할은 조직혁신역량과 수출성과 사이에서는 유연성이 조절역할을 하며, 마케팅역량과 수출성과에서도 유연성은 조절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공정혁신역량과 수출성과 사이에서는 조절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소기업 역시 해외시장에 대한 유연성이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수용정도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기술이 급격히 변하고 소비자의 요구가 세분화 되는 최근의 환경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조직의 혁신역량(공정혁신, 마케팅혁신, 조직혁신) 등은 경쟁우위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요소가 기업의 유연성과 수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특히 기업이 해외시장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유연성 및 성과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는 조직혁신역량으로 조직이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채택하고 기업에 내부화 하는 능력은 불확실한 외부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혁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경영로드맵이 설정 되어야 하며, 정부의 지원 부문 역시 조직혁신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Chang, Soo-Duck and Tae-Heon Kang (2010),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Uncertainty, Organizational Slack, and Paternalism on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Firm Performance: An Empirical Study of SMEs in Korea",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2(3), 65-87.
- Bae, Chang Bong and Jung Hee Kim(2019), " The Effect of Business Startups' Entrepreneurship on Innovativion Capacity, Innovation Behavior, and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Distribution and Management Research*, 22(4), 33-45
- Yoon, Seung-Hwan and Sehwa Ahn(2022),"Innovation Capabilities and Export Performan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type SME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Flexibility",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40(2), 81-97
- Morgan, N. a., D.W. Vorhies and C. H. Mason (2009), " Market Orientation Marketing Capabilities and Firm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0(8), 909-920.
- Cohen, W. M. and D. A. Levinthal (1990), "Absorptive Capacity: A New Perspective on Learning and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5(1), 128-152
- Zahra, S. A. and G. George (2002), "Absorptive Capacity: A Review, Reconceptualization, and Extens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2), 2002.
- Burgelman, R., C. Christensen and S. Wheelwright (2009) "Strategic Management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New York: McGraw-Hill, 2009.
- Shefer, D., Frenkel, A., "R&D, Firm Size and Innovation: An Empirical Analysis", *Technovation*, 25(1), 2005.
- Cohen, W. M. and D. A. Levinthal (1990) "Absorptive Capacity: A New Perspective on Learning and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5(1), 1990.
- Eshima, Y. and B. S. Anderson (2017) "Firm Growth, Adaptive Capability,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8(3), 2017.
- Tsourveloudis, N. C. and K. P. Valavanis (2002) "On The Measurement of Enterprise Agility", *Journal of Intelligent and Robotic Systems*, 33, 2002.
- Kanter, R. M., "From Spare Change to Real Change: The Social Sector as Beta Site for Business Innov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77(3), 1999.

- Mone, M. A., W. McKinley and V. L. Barker, "Organizational Decline and Innovation: A Contingency Framework",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1), 1998.
- Tsourveloudis, N. C. and K. P. Valavanis (2002), "On The Measurement of Enterprise Agility", *Journal of Intelligent and Robotic Systems*, 33, 2002.
- Jung, Bung-Chul and Soon-Gwon Choi, (2019), "The Effect of Type of Innovation Capability of SME on Management Performance (Financial/Export)" *Korean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23(3), 247-271
- Lee, Dae-Hee and Chang-Hyun Jin (2016), "The Effect of Innovation Managerial Capabilities and Entrepreneurship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in Korea", *Korea Corporation Management Association*, 23(3), 127-149.
- Denslow, D., Giunipero, L. C. and R. Eltantawy (2005), "Purchasing/Supply Chain Management Flexibility: Moving to an Entrepreneurial Skill Set",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34(6), 2005.
- Kim, Seong-Kook and Ji-Sook Hong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Salesperson Competencies and Performance in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Management Review*, 259-271
- Kim, Jong-Young, Jong Woo Pakr and Dong Hyuk Jo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Supply Chain Orientation, Agility and Performance: Focusing on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Businesses Located in the Capital Region" *Korea Corporation Management Association*, 63, 229-247.
- Lee, Byung Hee (2011), "Impacts of In-house Subcontract on Economic Performance in Korean Large Firms",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21(2), 1-22.
- Cohen, W. M. and D. A. Levinthal (1990) "Absorptive Capacity: A New Perspective on Learning and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5(1), 1990.
- Seo, Pan Jong, Kim, Dong Hui and Moon, Tae Soo (2022). "A Study on Organizational Competen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for Smart Factory Implementation of Kore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31(1), 197-218.
- Yun, Sang Man, Yoo Hwan, Lee and Young Wook, Seo (2018) "A Study on Innovation Activities of Firms by Government Policies and Internal Innovation Factors", *Korea Corporation Management Association*, 25(5), 131-157.
- Lall, S. (1992),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Industrialization", *World Development*, 20(2), 165-186.
- White, M.A. and Bruton G.d. (2010), "The Management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A Strategic Approach", Cengage Learning.
- Ji, Seong-Goo and Hae-Soo, Pyun (2009), "The Relationship among Environmental Uncertainty, Marketing Agility, Marketing Performance" *The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22(2), 1013-1035.